

“공공기관 전남 이전... 민간 차원 역할 확대 필요”

전남연구원-지역경제학회 토론회 지속가능 성장 동력 필요성 공감 지역특성 고려 민간협력체계 구축 민간유치위 위촉...맞춤 전략 마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지역 균형발전 대안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전남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다.

전남연구원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3시 호텔현대 바이라

한 목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및 학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며,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강조했다.

박용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 방안'을 주제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한계를 살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7대 원칙을 소개하며,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치 전략과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원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일태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나주봉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참여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남도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남도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수도권 공공기

관의 전남 이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남연구원은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아젠다 발굴과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도, 천일염 명품화로 산업 활성화 박차

온라인 판매·홍보 교육 등 워크숍 전남도, 6개 사업 총 74억원 지원

전남도는 천일염 명품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천일염 판매·홍보 교육 등 워크숍을 지난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삼주 전문 강사의 인권 교육과 김재성 ㈜말하는사람들 대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천일염 판매와 홍보 교육 등 천일염 생산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천일염 체험 중 발생하는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무더웠던 올여름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애쓴 생산 여가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지원,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천일염 생산을 위해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은 천일염 생산 여가의 인권 의식 개선과 도내 천일염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총 15회 실시됐으며 64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육성코자 생산시설 자동화를 위한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등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금박람회, 누리소통망(SNS), 언론매체를 통한 명품 천일염의 우수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치는 등 올해 6개 사업, 7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천일염 명품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가 21일 호남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4년도 제 5차 회의'에서 대학-고교간 상생관련 대학별 의견 수렴과 내년에 도입되는 RISE 사업 추진 과정 등을 논의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구 초당대 총장(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직무대행,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이병은 국립순천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윤빈호 목포가톨릭대 총장, 황민호 호남신학대 총장, 정용화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하준석 전남대 연구처장이 참석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시, '위탁가정 만남의 날' 개최

위탁부모·아동 130여명 참석

광주시와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구 치평동 텔리하우스에서 '위탁가정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족, 다함께 웃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올 한해 동안 위탁아동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 위탁부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탁 아동에게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위탁부모와 아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모범 아동 표창, 감사패 전달, 위탁가정 편지낭독 및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위탁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위

해 헌신한 위탁부모와 활동가들에게 광주 시장상(3명)을, 모범 위탁아동에게 광주 시교육감상(3명)을, 가정위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2명)를 수여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이 부모의 사망·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경우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광주시에는 현재 300여 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전문아동보호비, 자립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 전라권 최우수 시설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선정 "이용시간 확대 등 시민 배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4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공모'에서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가 전라권 최우수 공공체육 시설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인증 동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5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말 현재 완공된 전국 246개 국민체육센터 중 전라권(광주·전남·전북) 최우수 시설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퇴근 후 이용객을 위해 마감 시간을 오후 8시50분까지

로 확대 운영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공개 추첨하는 등 시민을 배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국민체육센터는 도민이 거주지 근처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토대"라며 "도내 운영 중인 나머지 31개 국민체육센터도 이용자 편의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수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5개 자치구 농업인 1만103명

광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대상자 1만103명의 농업인에게 11월 말부터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

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해 1만103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978가구 26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8125명 7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소

농직불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대상자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전홍발 지급단가는 비전홍 논의의 80% 수준까지 상향될 계획이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이 더욱 강화된다.

남택승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접수

전남도는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으로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

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8000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오지현 기자